

## 이란 핵협상 타결 내용과 향후 전망

### 1. 이란 핵개발 동결 협상 타결

#### □ 국제사회의 對이란 경제제재 일부 완화

- 이란의 핵개발 동결 협상이 4일간의 회의 끝에 11월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음.
-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이란 외무장관 등이 공식 확인하였음.

#### 금번 협상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

-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함.
- 이란은 국제사회의 이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5% 이하로 희석시키거나 산화물로 전환하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  
(다만, 이란이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농축 시설은 유지 가능함.)
- 이란은 내년 말 가동 개시 예정이던 Arak 중수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음.
  - 동 발전소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서방 국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동 중수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음.
- 이란은 IAEA가 Parchin 군사기지,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P5+1 국가들은 협상과정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 금지와 Arak 중수로 건설 중단을 요구해 왔으나, 동 요구사항이 협정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기존 원심분리기의 해체 등 궁극적 수준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음.

## □ 제재조치 일부 완화의 경제효과

-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금번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이란은 그동안 동결되었던 42억 달러 규모의 해외자산(주로 석유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석유화학제품과 차량 관련 품목 등 그간 수출이 막혔던 19억 달러 규모의 상품 수출 및 귀금속의 국제거래도 가능해짐에 따라 이란은 향후 6개월간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됨.

## 2. 협상 타결의 배경

### □ 이란, UN과 서방 국가들의 제재 지속으로 경제난 가중

- 미국은 1979년 11월 미국 정부가 망명한 팔레비 前국왕의 입국을 허용하자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직원들을 인질로 억류함에 따라 첫 경제제재를 발효한 이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해 왔음.
- 이후 2006년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으로 핵무기 개발의 의혹이 제기되자, UN과 EU 등도 다양한 결의안을 통해 對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은 무역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경제난이 가중되어 국내적으로 서방 국가들과의 타협 요구가 제기되었음.

### □ 온건파로 알려진 로하니 대통령의 당선으로 협상 가속화

- 금년 8월 온건주의자로 알려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서방국가들과의 대결구도가 완화됨에 따라, 그 동안 교착상태를 지속했던 서방 국가들과의 핵개발 관련 협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관측됨.

**표 1: UN의 對이란 경제제재 결의안 연표**

<p><b>2006년 12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보리 결의안 173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작업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의 협조 요구</li> <li>- 對이란 핵개발 관련 물질·기술 금수조치</li> <li>- 이란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 관련 주요 인사 12명 및 10개 기업의 해외자산 동결조치 (기업은 별도의 상업적 제재조치 추가)</li> </ul> </li> </ul>
<p><b>2007년 3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보리 결의안 174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및 금융대출 제한</li> <li>- 이란의 해외자산에 동결조치 대상에 13개 기업 추가 (이란 핵개발 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기업들)</li> </ul> </li> </ul>
<p><b>2008년 3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보리 결의안 180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대상 확대</li> <li>-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의 對 이란 수출 금지</li> <li>- 회원국들에게 이란 은행들의 활동 감시, 이란 국적 선박·항공기 조사,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자국 내 활동 감시 등을 촉구</li> </ul> </li> </ul>
<p><b>2008년 9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보리 결의안 183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서의 對이란 결의안(1696호, 1737호, 1747호, 1803호) 재확인</li> </ul> </li> </ul>
<p><b>2010년 6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보리 결의안 192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의 미사일 개발 금지</li> <li>- 對이란 전차, 전투기, 헬리콥터 등 무기 수출 금지</li> <li>-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여행 금지</li> <li>-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영 해운회사의 해외자산 동결</li> <li>- 회원국들에게 이란행 화물선 조사, 핵개발과 관련된 이란 선박의 입항 금지, 이란 은행들의 자국 내 지점 개설 금지 등 제재조치 동참 촉구</li> </ul> </li> </ul>
<p><b>2011년 6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보리 결의안 198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년 연장</li> </ul> </li> </ul>
<p><b>2012년 6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보리 결의안 204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3개월 재연장</li> </ul> </li> </ul>

### 3. 향후 전망: 합의 결렬 가능, 국제유가는 하향세 전망

#### □ 이란의 향후 태도에 따라 합의 결렬 및 제재 강화 가능성

- 금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6개월간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을 단계별로 확인해 나가며, 이란이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언제든지 결렬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안을 어기면 완화된 제재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對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 □ 농축 우라늄 생산권 문제는 미해결 상태

- 양측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인,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생산의 권리 인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 P5+1 측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권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반응이나, 이란 협상단은 해당 권리와 기술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입장도 변수로 작용

- 이란 핵시설에 대한 독자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이스라엘은 동 합의에 강하게 반발, 최대의 동맹인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됨.
- 수니파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으로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온 사우디아라비아도 불만을 표시,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이란산 원유 공급 증가 기대로 국제유가 하향 안정세 전망

- 금번 합의로 인해 장기적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6개월의 시한부 합의라는 한계로 인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